■ 정부, 세종시 투자 일방 강요 … 기업들 뿔났다

"이전기업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불만

"중장기적 계획없이 투자땐 낭패" 전전긍긍

야권 "관치금융 부활·재벌 줄세우기" 비판

정부가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과의 접촉을 본격화하면서 재계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일방통행식으로 세종시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요체. 실제로 투자의 주체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재계와 야당 등은 정부의 압박에 대해 '시장경제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종시 축소에 총대를 메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세종시 세일즈'에 본격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등 14명의 기업인과 만나 기업 중심의 새로운 세종시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직접 주요그룹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업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투자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기업 유치 드라이브에 대해 기업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넘어 불만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의 반응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LG는 세종시에 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 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 그린카 연구센터 건립 가능성이 제기된 현대기아차는 "확인된 게 없다", 세종시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삼성전기 역시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고 각각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정부가 이전 기업을 미리 정해 놓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업들이 '보은(?)'을 위해, 또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 세종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이고 기업논리에 반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재계에서는 제 2롯데월드 건립의 숙원을 풀어 이명박 정부 최대 수혜기업으로 거론되는 롯데그룹을 비롯한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현대기아차그룹·한화그룹·SK그룹 등도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없이 이전 및 투자를 결정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총리, 정부여당이 총동원되어 재벌기업을 세종시를 향해 '앞으로 가' 하는 식의 과거 유신, 신군부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짓을 통해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시 협조 좀 해주세요" 정운찬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만찬에 참석 조석래(왼쪽에서 두번째) 전경련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과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3대 이슈' 온도차

4대강 호남권 의원들 찬성

세종시 비효율 일부서 지적

아프간 파병도 일부 찬성

세종시와 4대강, 아프간 파병 등 연말 정국의 핫 이슈를 놓고 민주당 내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이 같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지역과 이념성향에 따라 이견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즉각 중단'이 공식 당론이지만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의원들은 일각에선 영산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나주가 지역구인 최인기 의원은 17일 "영산강은 수질 오염이 심각해 다른 강과 사정이 다르다"며 "당에서도 영산강의 경우는 다른 4대강 사업과 분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영산강은 수질오염이 심한데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 사업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무모한 대운하, 뱃길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면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수정 반대'가 당론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의 비효율성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적전 분열을 우려, 당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간 파병의 경우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결정, 이번 주 의원총회에 앞서 쐐기를 박았지만 일부 찬성파 사이에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과거 집권여당 시절 파병을 찬성한 데다 국익과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무조건 재파병 반대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도 '조건부 찬성' 의견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쟁점에 대해 의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4대강과 세종시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며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70~80%가 반대하고 있어 반대당론을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세균 '민생행보' 가속화

노인회관·농민대회 투어

일부선 대권행보 눈총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세종시 논란으로 들썩이던 충남 연기군 방문으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정 대표는 17일에는 '민생버스'를 타고 서울 동작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정 대표는 노인들과 틀니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뒤 동행한 이미경 사무총장,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김상희 이성남 의원 등과 김장 담그기 행사도 벌였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변인은 "정 대표가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이 국민 속에 뿌리박기 위한 화두로 변화·색깔·현장 등 세 단어를 주로 쓰고 있다"며 "당의 변화가 구현되는 곳이 탁상이나 밀실이 아니라 현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하는 '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 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어 18일에는 당 여성위가 용산참사 유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일찻집에 참석하고 19일에는 경기 여주에서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 대표의 행보에 대해 지나치게 대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선주자 지지도가 좀처럼 뜨지 않는 데 대한 대응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여권과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원내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가 개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르네상스 청년들이 열어야"

강운태 의원 전남대 강연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17일 "호남인은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 예술적 영감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다"며 "광주·전남 청년·대학생들이 호남인의 DNA를 살려 지역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남대 법과대학 초청 강연에서 "광주·전남 청년·대학생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선도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민주주의로 자리매김했던 것처럼, 문명사적인 변화와 창조의 새 물결을 선점해 광주·전남 르네상스를 열고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청년 일자리의 창출, 지역경제규모의 배가, 두뇌 집적의 창조적 문화,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건강한 감시활동을 통해 창조적 리더십을 창출해 지역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선출직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권노갑 광주·전남 방문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18일 3박4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다. 동교동계 관계자는 17일 "권 전 고문이 오래 전에 지인들의 초청 등을 받아 이번에 광주·전남을 방문하게 된다"며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최근 하의도를 방문한 데 이어 또다시 광주·전남지역을 찾은 데 대해 정치적 행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권 전 고문의 이번 방문에는 임채정·유인태·염동연·이훈평 전 의원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고문 일행은 18일 오전 광주로 내려간 뒤 나주~무안~함평 등을 둘러보고 귀경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